

# 춘계학술대회 및 한중국제학술대회

성경적 세계관을 학문에 적용한 결과와 고민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  
2012년 춘계학술대회 및 한중국제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제학회 주제:** "기독교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基督宗教在当代社会中的作用)"  
**춘계학회 주제:** 기독교 학문의 연구 현황과 과제 Ⅲ  
1. 법학분야 2. 의료분야

**일시:** 2012년 5월 18일(금)~19일(토) 10:00~18:00  
※ 5월 18일(금) 국제학회(중국 절강대학교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소 공동주최)  
※ 5월 19일(토) 기독교학문학회(대학원생 논문발표, 주제강연 및 논평, 분과별 발표)

**장소:**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국제회의장  
**주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절강대학 기독교타문화연구소,  
기독교학문연구회  
**주관:** 기독교학문연구회(학회),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소(절강대학교)

## 국제학회 일정표 (5/18, 금)

| 시 간         | 일 정             | 내 용            |
|-------------|-----------------|----------------|
| 13:30-14:00 | 등 록             |                |
| 14:00-14:10 | 개회사, 환영사, 축사    |                |
| 14:10-15:40 | PART 1 (중국측 발표) | 발제별 30분 (논찬포함) |
| 15:40-16:00 | 중간 휴식           |                |
| 16:00-17:30 | PART 2 한국측 발표   | 발제별 30분 (논찬포함) |
| 17:30-17:50 | 종합정리            |                |
| 17:50-18:00 | 폐회사 및 광고        |                |

## 춘계 기독교학문학회 일정표 (5/19, 토)

| 시 간         | 일 정                           |
|-------------|-------------------------------|
| 09:30-10:00 | 등 록                           |
| 10:00-12:00 | 대학원생 논문 발표회                   |
| 12:00-13:00 | 오 찬                           |
| 13:00-14:00 | 개회/시상식                        |
| 14:00-15:00 | 주제강연 및 논평<br>이국운 교수<br>김민철 원장 |
| 15:00-16:00 | 분과별 발표회(9개분과/ 31명)            |
| 18:00-19:00 | 만 찬                           |

※ 상기 세부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02-3272-4967(사무국), 010-4195-1769(학회담당 간사)  
gihakyun@daum.net, info@worldview.or.kr

제 5 회

2012 DCTY 기독교 교육 컨퍼런스

# 세상을 바꾸는 교육



일시 2012.6.15(금)-16(토)

장소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주제강사 신국원

- ▶홍신대 신학과 철학 교수
- ▶문당중앙교회 협동 목사
- ▶일리노이 대학원 연구 교수
- ▶주요 저서 : '니고데모의 안경'



주제강사 이지성

- ▶전 삼원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교사
- ▶가정폭력 어린이 개별 사업 홍보대사
- ▶주요 저서 : '리딩으로 리드하라'



주제강사 리처드 에들린

- ▶고신대학교 객원교수
- ▶에드워즈 인터내셔널 설립자
- ▶교육학 박사
- ▶주요 저서 : '기독교 교육의 기초'



**2011 워크샵 주제** ◆**홈스쿨 시작하기** 8세 이전에 가르쳐야 할 열가지 / 우리 자녀를 위한 커리큘럼 만들기 / 홈스쿨의 가치 / 가정을 살리는 올바른 권위 / 다양한 홈스쿨 접근 방식 자녀와 부모의 학습 및 교수 유형 / 홈스쿨의 위험요소 인식과 해결방법, 홈스쿨 아빠 제대로 하기 ◆**홈스쿨로 공부하기** 영어 못하는 엄마가 영어 가르치기 / 고전적 교육법으로 문학 가르치기 / 문학으로 가르치는 유치동 언어교육 / 사춘기 청소년은 무엇을 원하는가 / 홈스쿨 축구의 과학과 예술 / Newspaper in Education / 코업으로 공부하는 과학 / 고등학교 과정을 홈스쿨로 공부 해야 하는 이유 / 유비추리를 통해 사고력 키우기 ◆**기독교 교육과 홈스쿨링** 유대인 홈스쿨링의 학습교육 / 유대인의 신앙과 인성교육 / 성경적 여성성 전달하기 / 역사와 사회의 통합적 교육 / 노동이 기도라 / 통합적인 기독교 영성: 부모의 영성에 따른 교육 / 통합적인 기독교 영성을 기초로 한 교육의 예 /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 샬롯 메이슨의 과학 교육 / 아름답고 경이로운 지구 /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본 인간 정보처리의 한계와 극복방안 ◆**과학과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두 권의 책, 과학과 성경 / 과학 철학 이해: 과학의 변화와 혁명 / 기독교 세계관으로 과학 가르치기 / 기독교 세계관으로 과학 바라보기 /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과학주의와 기독교 ◆**홈스쿨링으로 세상 바라보기** 법으로 해석하는 홈스쿨링: 의무교육과 의무취학 / 홈스쿨링 운동사: 교육 독점에 반기를 든 존 홀트와 기독교교육 금지에 반기를 든 보수 기독교 단체 / 입학 사정관 제도와 국제 청소년 성취 / 창의적 인재 발굴을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 저지대 비전론 / 기독교인은 자연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생태적 위기 시대의 과학 교육

문의 070.7732.7256

홈페이지 [www.dctybooks.co.kr/conference](http://www.dctybooks.co.kr/conference)

주최 DCTY 꿈을이루는사람들

후원 한국기독교홈스쿨협회 기독교대한학교연맹 JHA<조슈아홈스쿨아카데미> 아이홈스쿨러 하늘소리오케스트라 글로벌홈스쿨링아카데미



# 희라힐! 라이브

· 방영시간. 수요일 오후 8시 10분 / · 진행. 조하문 목사, 개그우먼 이성미

연예인과 함께하는 찬양 & 토크 프로그램

스타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순간들... 그들이 겪은 가나안과 광야 story를 듣는다!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 [www.cgntv.net](http://www.cgntv.net)

<채널안내> · IPTV <Olleh tv 556번/B tv 554번/U+ tv 183번> · 케이블 <C&M 703번/C&M강남 136번>



# 세계관과 어머니

©2012 JEONG IL KWON

‘세계관과 어머니?’ 제목을 보고 의아해 하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세계관을 오만군대 다 갖다 붙이는군! ‘달과 500원’에서처럼 ‘과’를 불법적으로 붙인게 아닌가?” 그러나 사실은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다. 어머니와 세계관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누구도 세계관을 어머니 배속에서 타고 나지 않는다. 세계관은 이 세상에 태어난 후 주위 사회로부터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다. 합리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기본 관념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설령 생득적 관념(生得的 觀念)이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으로이지 구체적인 지식으로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로크(John Locke)가 주장한 것처럼 인간은 백지상태로 태어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경험을 통하여 그 백지에 글자가 써지고 그 글자들이 모여 단어가 되고, 단어들에 결합해 문장을 이루면 지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결합하는 주체가 작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의식적, 무의식적인 경험, 가치관, 행동방식 등을 모두 뭉뚱그려 표현한 것이다.

세계관도 후천적인 것인 만큼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다. 세계관이란 의식할 수 있는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행동, 판단, 소통에 녹아 있고 거기에 작용하는 가치관 혹은 윤리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보다는 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주위 사람들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의식적으

로 전수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어머니의 세계관이 자녀의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 최초로 만나는 사회는 가정이고 최초의 교사는 어머니다. 교육학이나 심리학의 심오한 연구를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릴 때 받은 훈육과 교육이 사람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고 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가문을 보라는 충고도 공연한 것이 아니다. 백지상태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바탕이 되고, 그 바탕을 근거로 해서 원시적인 자아가 형성되며, 그렇게 생긴 자아가 주체가 되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를 취사선택한다. 그래서 최초의 정보, 어릴 때의 정보가 한 사람의 인격형성과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생 최초의 접촉이 어머니와 이뤄지고 어릴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보내기 때문에 최초의 정보는 어머니가 제공하고 어릴 때의 정보 대부분도 어머니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사투리를 쉽게 바꾸지 못하고 어머니가 제공한 음식 맛을 평생 잊지 못한다. 나무도 어릴 때 곁에 키워야 곧은 나무가 될 수 있고 굽은 나무라도 어릴 때 바로 세워야 바로 자란다. 그러나 다 자라버린 굽은 나무는 바로 잡을 수 없다.

물론 인간은 나무와 달라서 성장과정에서 가치관, 행동방식, 세계관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동역회가 세계관 강의를 하고 책을 내며 이런 잡지도 발행한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어릴 때 서양으로 이민 간 사람은 비교적 쉽게 그 문화에 적응하나 어른이 되어서 이민 간 한국인은 거의 대부분 그 지역 언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 문화에 동화되지도 못한 채 한국인으로 죽고 만다. 물론 어머니의 세계관도 그 어머니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도 그의 어머니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 밑에 자란 자녀도 그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개인의 세계관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세계관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 사실은 한 사회의 세계관이 어머니를 통하여 일찌감치 자녀에게 학습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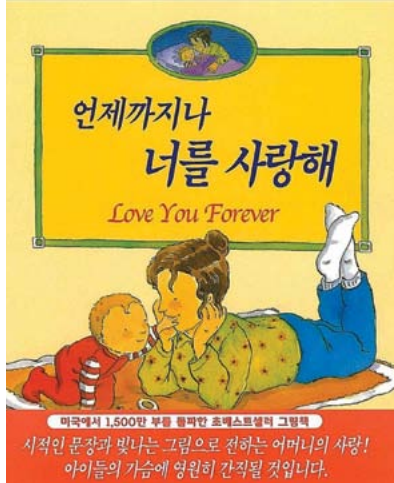
만약 자녀에게 전수된 어머니의 세계관과 그 세계관을 결정하는 그 전의 세계관이 잘못되었다면 누가 그것을 가장 쉽게 고칠 수 있겠는가? 태어난 아이는 물론 고칠 수 없고, 사회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스스로의 세계관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한다. 그 셋 가운데는 역시 어머니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세계관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어머니의 세계관을 고치는 것이 세계관 교육에 가장 효과적이다.



손봉호 본지의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문화포럼 대표이사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 Contents

WORLDVIEW · APRIL · 2012



# WORLDVIEW

2012년 4월호 WORLDVIEW 통권 142호



표지인물  
드니스 글렌, 데이비드 글렌,  
김은영

〈월드뷰〉는 우리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COVER STORY

12 마더와이즈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십시오

## SPECIAL

18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산다는 것은\_편집부

22 성경, 여성에 대해 말하다\_김희자

## COLUMN

04 대표주간 킬립 세계관과 어머니\_손봉호

08 발행인의 글 어머니 그리고 여성\_김승욱

30 가족을 위해 읽다 결혼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온전합니까?\_김건주

33 가족학이야기 우리들의 자녀양육 다시 생각해 보기\_김성은

36 대중문화 속 가족이야기 누가 너의 가족이나?\_박진규

39 그림책이야기 하나님의 가정에서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_현은자

42 미술이야기 박희숙, 하늘의 곡조\_서성록

48 음악이야기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음악\_이경원

## CULTURE

26 포토에세이 빛으로 채운 사랑\_정일권

60 유머 '철저히' 준비된 은행털이\_손봉호

## BOOK REVIEW

52 서평 피고석의 하나님\_송태현

56 서평 제국과 천국\_최태연

## NEWS

61 월드뷰 뉴스 & 독자후기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간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김건주  
편집위원 김승태, 김혜정, 신현기, 유경상,  
장유진, 차명실  
자문위원 유진희, 정종모, 이상정  
기자 임지연  
논취 김아리나, 오은주  
교정 변유미  
사진 정일권  
디자인 황정희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facebook.com/cworldview)

# 어머니 그리고 여성

본지는 올 한 해 동안 가족과 관련된 주제를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호의 “가족”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머니와 여성”을 다루었습니다. 아마 ‘가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가 어머니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첫 편지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오직 복종할 것이요(고전 14:34)”라고 했습니다. 육체노동이 중요하던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육체적으로 강한 남성이 가부장적 사회를 이룩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유대 사회도 그러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908년에 미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여성의 권리를 알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가 지배적이어서 “그래도 아들”이라는 말도 있었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남아가 16.5%가 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주도권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로 넘어가고, 남아선호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서울국제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를 주최한 ㈜베베의 설문조사에서 “첫 아이로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수치가 68%로 아들을 선호한다는 응답보다 두 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또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의 딸 선호도가 40대의 경우에는 27.9%에 불과했지만, 30대는 37.8%로, 그리고 20대는 38.9%로 높아져 앞으로 딸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



로 전망됩니다. 이미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성비에서도 남아선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못하는 중국에서도 이미 딸을 아들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에게 아들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눈물을 글썽글썽하셨던 분이 있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20여 년 전엔 상상할 수 없던 현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또 아들만 둘이면 동메달도 아니고 목메달'이란 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 아내는 금메달입니다. 아들과 딸을 둔 상태에서 43세에 딸을 낳았거든요. 딸 키우는 재미에 푹 빠진 부모를 '딸 바보'라고 하던데,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국사회에서 아들을 선호했던 것은 인간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사후의 삶은 후손이 드리는 제사에 달려있다는 세계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승불교국가인 캄보디아에서는 장자상속제도가 없고, 막내딸이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크면 하나씩 출가하고 결국 남은 막내딸이 부모를 모시고 살고, 집을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내딸이 가정에서 실세라고 합니다.

현대인에게서 아들 선호사상이 없어진 것은 세계관의 변화 때문입니다. 합리주의 세계관의 영향으로 내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현세의 삶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딸 키우는 재미가 더 클 것 같다.'(34%),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마음을 더 잘 알아줄 것 같다.'(33%), '아들보다 딸이 부모를 꼼꼼하게 더 잘 챙긴다.'(20%) 등이 딸을 더

©2012 JEONG IL KWON



©2012 JEONG IL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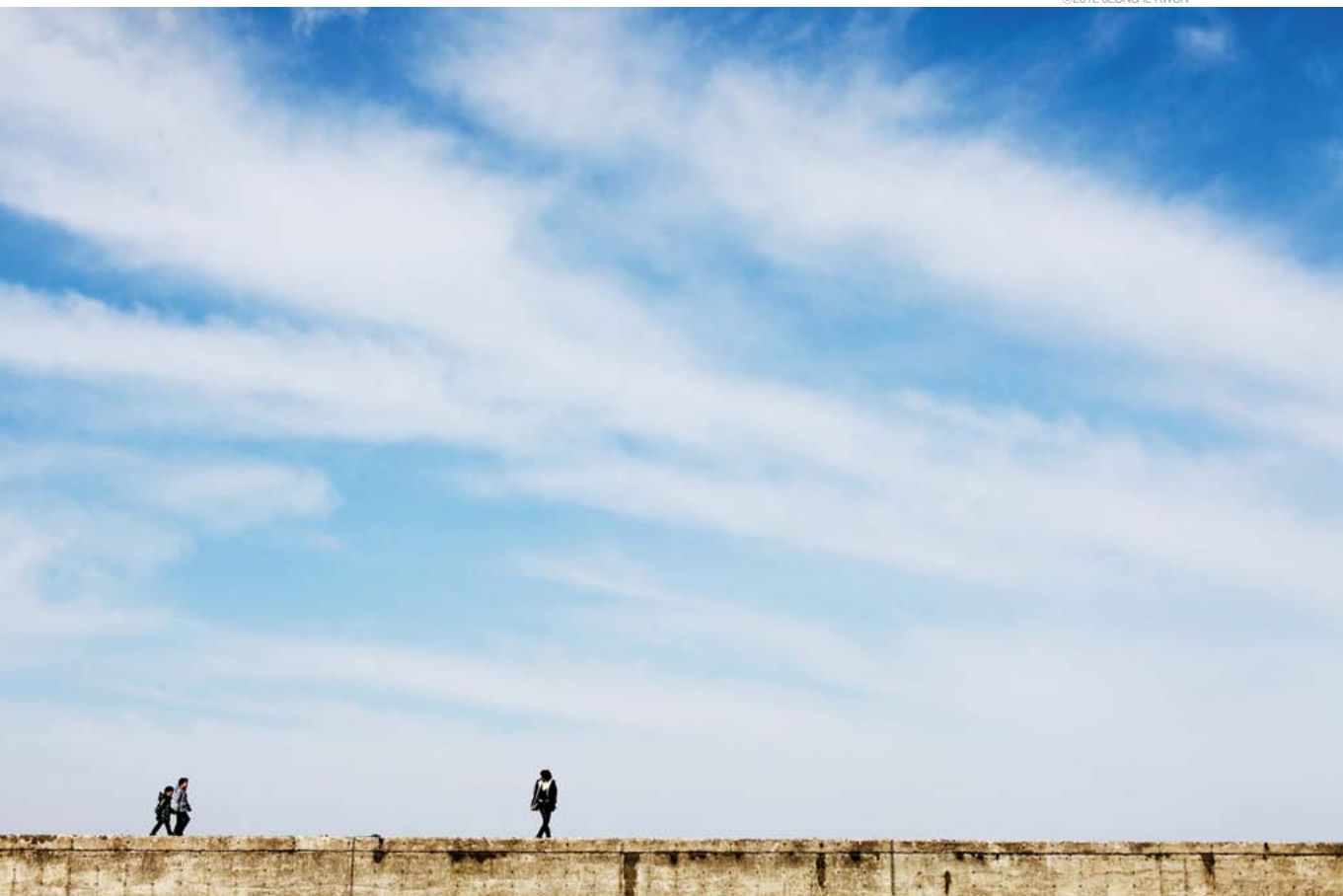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아들 집에 가면 눈치 보지만, 딸 집에 가면 편하다는 말을 합니다. '며느리를 딸로,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바보는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로 착각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딸을 더 좋아하는 이유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아들은 자랄 때도 부모와 대화가 적은 반면에 딸은 대화도 자주 하고, 부부 끼리만 사는 집에 자주 찾아오는 것도 딸이기 때문에 딸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들은 이제 자식도 자신의 행복추구에 대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있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런 어머니의 희생은 이제 옛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남녀 간 경제력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에서 여성차별이 여전하다고들 하지만, 여성이 앞서서 부분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경우 매년 학과별 수석졸업자는 거의 대부분 여학생이 차지합니다. 어느 해에는 ROTC에게 주어진 상을 제외하고 졸업식장에서 수여한 모든 상을 여학생들이 차지한 해도 있습니다. 취업에서 여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우수해서 이제는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남학생들을 별도로 가점을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사도 압도적으로 여선생님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여성 합격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역자 사역에도 여성의 활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의 경우 여성 교역자가 총대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서 남녀평등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21세기에 어머니 또는 여성은 어떠한 위치로 변화되었는가? 이렇게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크리스천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꾸며보았습니다. ☺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 경제사학회 회장역임,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정책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



#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십시오

지난 2월 14일 한국 마더와이즈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세미나 현장에서 드니스 글렌 국제 마더와이즈 대표와 남편이자 동역자인 데이비드 글렌, 그리고 한국 마더와이즈 김은영 대표를 만났다.



©2012 JEONG IL KWON

**Question** 마더와이즈 사역은 작은 기도모임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nswer** 드니스 글렌 결혼 당시 데이비드는 22살, 저는 19살이었습니다. 둘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 사역자였고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곳도 대학생들을 위한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결혼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 주도권 싸움이 계속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이 되던 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혼하자고 하자 남편은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

리는 하나님께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나이 드신 여성 성도들을 통해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 공부와 기도를 통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며 순종하자, 우리의 관계도 변하고 주도권 싸움도 끝이 났습니다. 자녀양육에 관한 우리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후 저는 주변의 다섯 명의 젊은 엄마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을 기르는 방법을 나누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주변 교회에서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마더와이즈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Question** 마더와이즈 사역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드니스 글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삶이 변화되는 것(Hearts Surrendered, Lives Transformed)'입니다. 삶이 변해야만 배움이 일어납니다. 배움의 결과는 삶의 변화입니다. 마더와이즈



©2012 JEONG IL KWON



©2012 JEONG IL KWON

사역은 그저 좋은 엄마가 되는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순위는 남편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 세 번째 순위입니다. 많은 경우 자녀를 남편보다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자녀들의 경우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돌보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남편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하나님 다음 순위로 두기 위해서는 남편을 존경하며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 순위는 엄마의 일입니다. 엄마의 일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되서는 안 됩니다. 잠언 14장 1절("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위는 사역입니다. 앞선 순위들이 잘 지켜지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기회를 주시고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Question** 마더와이즈에서 강조하는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어머니'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드니스 글렌 현숙한 아내는 우선순위를 알고 시간과 에너지를 알맞은 곳에 쓸 줄 아는 아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선택권이 늘어날수록 이기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큼니다.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에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nswer** 데이비드 글렌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현명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부부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Question** 한국에서는 2002년부터 마더와이즈 사역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김은영 미국에서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마더와이즈 사역을 만났습니다. 당시 출석하던 교회가 마더와이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4주 된 막내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했습니다. 탁아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서 편한 마음으로 아이를 맡기고 성경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소그룹에서 멘토링도 해주시고 함께 기도로 섬겨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마로써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고 그걸 누군가 체크해 준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5일 동안 집에서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그 말씀의 은혜와 새로운 자유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어머니, 동서, 4명의 목회자 사모, 두 명의 친구, 그렇게 일곱 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2012 JEONG IL KWON

"한국에 돌아온 후 그 말씀의 은혜와 새로운 자유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어머니, 동서, 4명의 목회자 사모, 두 명의 친구, 그렇게 일곱 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Question** 사역을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 아내, 혹은 엄마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김은영 엄마들은 아픔이 있는데도 그게 아픔이라는 것을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별력이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자녀양육 사이에 너무도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해 주면 우리 애만 뒤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아이 한명인데 잘 키워야지."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데,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가정으로, 교회로 계속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의 영향 때문에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가치들의 무게를 한번 재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의 짐을 안고 견뎌야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자유롭게 키우다가 성장할수록 교육이나 결혼문제 등으로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반대입니다. 어린 아이일 때 말씀으로 훈육하며 질서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성해 결혼하고 독립했을 때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중요한 시기에 엄마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Question** 젊은 엄마 가운데 워킹맘이 많습니다. 양육을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이유로 인해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Answer** 김은영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회에서 바라는 성공, 교육, 가치



©2012 JEONG IL KWON





**Question** 한국 마더와이즈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통해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사역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nswer** 김은영 한국말로 서투르고 네 아이의 엄마로 전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기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마더와이즈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작게 시작한 성경 공부가 10년이 되어 이제는 150개 국내 교회와 20여개 해외 선교지에서 2만명 넘는 어머니들이 매 해 10주 과정의 훈련에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탈북자 여성들, 미혼모,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이 사역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직 어머니가 아니지만 여성으로 예비 어머니로 준비되고 있는 청소년 및 대학을 다니는 자매들에게도 사역이 확대되길 기도합니다.

마더와이즈 사역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입니다. 교회와 분리해서 존재하는 사역이 아니며 교회가 중심이 되어 직접 주도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는 사역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더와이즈는 도움이 필요한 엄마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필요를 제공하고, 일꾼들을 세우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마더와이즈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



**데이비드 글렌(David Glenn)**  
석유 물리학자이자 '카도 국제 선교회(Kardo International Ministers)'의 공동 설립자이며, '마더와이즈 선교회(Mother-Wise Ministries)'의 설립자기도 하다. 아내인 드니스 글렌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정 사역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드니스 글렌(Denise Glenn)**  
텍사스 휴스턴 출신의 저술가이자 강연가로서 마더와이즈 사역의 창시자이다. 1980년 한 어머니와 작은 기도모임에서 시작한 이 사역은 미국전역과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3명의 결혼한 딸과 9명의 손자 손녀가 있으며 현재 남편과 함께 세계 각국을 방문하면서 MOTHERWISE, FATHERWISE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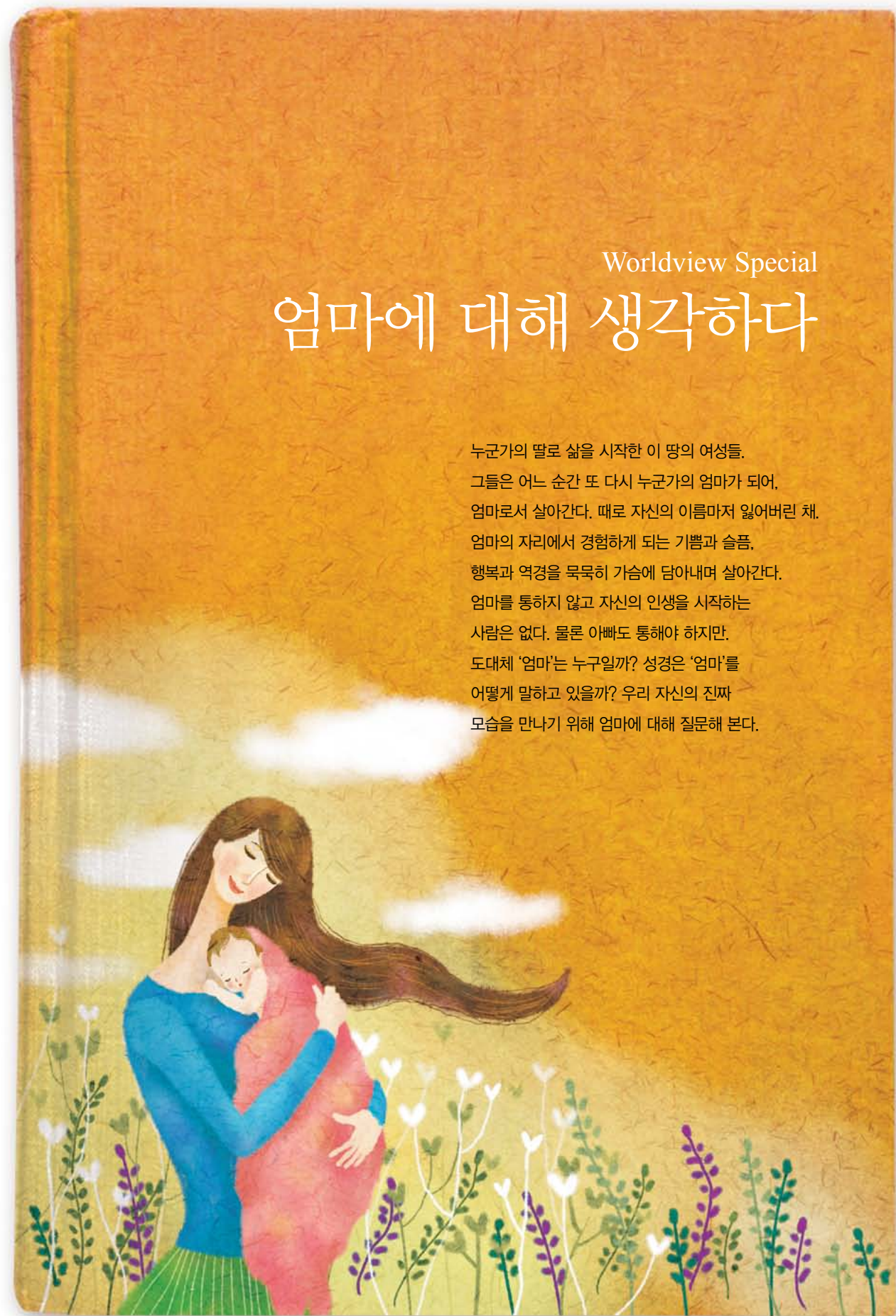


**김은영사모**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에서 미술 교육학을 전공하고 김정환 목사의 장남인 김요셉 목사와 결혼하여 한국에 왔으며 현재 원천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다. 중앙기독교 대학의 미술수업과 교육과정개발, 부모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며, 현재는 MOTH-ERWISE Korea 대표로서 국내외의 많은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는 비결을 전수하고 있다. 슬하에 자녀 4명(아론, 사론, 은진, 소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Worldview Special

# 엄마에 대해 생각하다

누군가의 딸로 삶을 시작한 이 땅의 여성들,  
그들은 어느 순간 또 다시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  
엄마로서 살아간다. 때로 자신의 이름마저 잃어버린 채,  
엄마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역경을 묵묵히 가슴에 담아내며 살아간다.  
엄마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아빠도 통해야 하지만,  
도대체 '엄마'는 누구일까? 성경은 '엄마'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기 위해 엄마에 대해 질문해 본다.





##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일상 속 평범한 수다처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다. 메일을 통해 설문을 동시에 진행했다. 설문과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엄마'라는 이름

'초보맘', '직장맘', '○○엄마', '두 딸의 엄마'... '엄마들의 이야기'라는 주제 때문이었을까? 모두들 자신을 소개하는데 '엄마'라는 단어가 중심에 있었다.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대개의 경우 여성들은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엄마로(만) 살아간다. 결혼 전과 변함없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소개하는 중심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있었다.

'직장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은 직장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문제로 고민 중이었다. '엄마'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직업의 특성에 따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을 위해 자신의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맘'들의 경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다.

"엄마 역할이 결코 part-time job이 아니라는 거, 일과 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역할을 full-time job으로 하는 대신 제 일을 part-time job으로 바꿨어요. 늘 관찰하고, 공부하고 고민해야 그나마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엄마'들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자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에 대한 갈증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기준'이 아닌 '성정적 기준'으로 자녀들을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열망과 갈증이 얼마나 채워지고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개인' 혹은 '해당 가정'의 몫으로 던져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 학교'와 같은 자녀 양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문제 가정 혹은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는 명제가 현실 속 엄마들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

###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아무런 고민 없이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혼에 관해서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이 적지 않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결혼 이후 부딪혀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지금 엄마들은 기대와 현실 사이 어느 지점에서 힘든 길을 걷고 있다.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었죠. 부모님 세대와는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서로 대화하면서 노력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남편은 남편으로 그리고 아버로서의 역할을 잘 맡아 줄 것이라 기대했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멋지게 일하는 워킹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민음의 사람을 만나서 민음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초신자인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도 잘 맞추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여러 부분에서 부딪치면서



21세기가 되었지만 이 땅의 엄마들은 이전 세대의 엄마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으면서 살아간다.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 틀은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만큼 신앙 생활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안타까워요."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위해 직장생활은 중단하고 아이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로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이를 직접 돌볼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 21세기가 되었지만 이 땅의 엄마들은 이전 세대의 엄마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으면서 살아간다. 오히려 이전 세대는 경험하지 않았던 어려움마저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 성 역할에 대한



대개의 경우 ‘남편’은 ‘아내의 기도 목록’ 상위에 위치한다. 문제의 원인이 환경이나 남편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의 신비와 원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다.

전통적 틀은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가사와 양육의 짐이 줄어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녀 양육의 부담이 가장 많은 30대 부부의 경우 10가구 중 4가구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임에도 말이다.

신앙적 부분에서 겪는 갈등도 적지 않다. 대개의 경우 ‘남편’은 ‘아내의 기도 목록’ 상위에 위치한다. 문제의 원인이 환경이나 남편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숙과 준비되지 않음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의 신비와 원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다.

“결혼 전에는 항상 혼자 판단하고 선택했죠. 결혼 후에는 작은 일도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인 것 같아요. 또 결혼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 시간과 돈 등등 모든 것을 투자했다면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이가 우선이 되다보니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투자를 하지 못하죠. 반면에 결혼 전에는 여유롭게 살다보니 이기적인 모습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나니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리게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많죠. 대화하는 것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요. 제 성격상 가족이든 친구든 사람을 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남편은 저와 반대로 의지하는 습성이 강해요.”

‘결혼 준비 학교’, ‘부부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채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을 꾸려 가는 경우가 많다. 기대와 현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어려움의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다.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까?

#### 엄마, 그녀들의 해법

평범한 엄마들이 스스로 찾아내 사용하고 있는 해법들이 있다. 그녀들의 해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우는 것이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변의 사람들, 특히 남편과 함께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일시적 해결책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다.

“엄마의 역할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조카도 없었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했죠. 신앙의 전수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야 여러 가정들의 자녀 교육이나 양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늘 바쁜 워킹맘으로, 먹이고 재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학학거리다가 아이를 대하는 양육태도나 정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의 준비가 부족했죠. 부모로서의 배움의 기회가 필요했어요. 제 경우에는 교회에서 아이 또래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하나님 안에서 둘다 연합하여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가 중요하죠.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서운한 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생각의 차이를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 세상기준,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다행히 성경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훨씬 행복해졌어요. 물론 여전히

부지런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 안타까워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의 이야기이다. 특별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다.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자 이웃의 이야기이다.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 전생태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필수적인 자원은 무엇일까? 엄마들의 가슴에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꿈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며 선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아직 거리가 멀지만, 그 출발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만, 남편의 아내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결국엔 내 이름으로 평가 받을 때, 나의 달란트도 잘 사용해서 녹슬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 성경, 여성에 대해 말하다

성경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핵심적인 신학적 질문 중 하나이다. 이 질문은 오랫동안 성경해석과 교회사에서 도전이었으며, 최근에는 한국교회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독교에서 모든 문제나 이슈는 결국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에 관한 논의도 성경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예언과 완성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특별히 여성문제를 따로 다룬 건 아니다. 그러나 신구약 곳곳 갈피갈피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 지위 등에 관한 사례들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성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볼 것이다.

## 1. 구약의 여성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6~27)

이 창조의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즉, 인간은 남성과 여성 안에서 그 완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피조물을 '다스리게'하는 책임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하기를, '그들(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는 창조명령을 주셨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과 여성 가운데 존재한다. 초대 교부들은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많은 의문의 글을 남겼다. 그러나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여자가 비록 2등급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는 혈연관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가족'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의 구성원이라기보다는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삼상 9:20)으로 표현된 혈연공동체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도록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 모세에게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하셨다.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신 31:11-12) 이 말씀에서 보듯, 여성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하나님과 백성간의 언약관계는 축복의 약속과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책임을 포함한다.

구약시대의 성직 수행과 공직(사사, 선지자, 왕 등)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선택하셨다. 당시 사사와 선지자 직분은 종교적 직분이었으나 사회 리더의 성격도 강했다. 사사기 4장 4~6절에 보면, 드보라는 당시 여선지자와 여사사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녀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먼 길

을 여행하기도 하였다. 홀다와 같은 여선지자는 당시 요시아 왕의 율법 관련 질문에 답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였다(왕하 22:14~20). 드보라와 홀다 모두 결혼한 여성으로, 각자 한 남편의 아내이었다. 아달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였다(왕하 11:3).

구약시대에 여성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그들에게 재산 상속이 가능했는지 찾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원래 이스라엘의 상속은 남자 계열을 통해 이루어졌다. 딸들은 결혼함과 동시에 출가 외인으로 간주되었고, 남편 가문에 속하였다. 따라서 보통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지만, 결혼 지참금과 예물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던 욥은 딸들에게 그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욥42:15). 모세는 지파 내 남자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기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 갈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슬로브핫의 다섯 딸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였다(민 27:1~11, 36:1~9).

구약을 대충 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남자가 상호보완적이고 평등했던 창조 질서가 인간의 타락 이후 지배와 종속 관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구약에 여성에 관한 많은 기록은 없지만, 사실 구약시대의 여성들은 가정, 사회, 종교 영역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창조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여성이 열등함을 가르친 적은 없다. 다만 당시 여성의 정체성은 상황적인 종속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신약의 여성 - 예수님의 여성관

구약시대는 여자 선지자나 사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여성의 열등함이 강조되면서 그들의 지위나 대접이 낮아졌다. 이는 유대주의(Judaism) 전통이 확립되어 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유대교에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문화와 가치관에 반영하여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은 종교나 교육, 사회에서 제외되었고, 있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가정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접근하신 방식은 '당시 유대교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관련 기록은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복음서 기사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시대 상황으로 볼 때 가히 '혁명적'이었다. 모든 계층의 여성들을 자유롭게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으며, 자신을 따르도록 허용해주셨다. 그래서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었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새

로운 것이었는데, 다음에서 좀 더 살펴보자.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여성을 인격적 존재로 대해주셨다.** 결혼여부나 성, 직업,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여성을 인간으로 대하셨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대상을 파악하셨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마 12:50)고 하셨다. 또한 여성을 남자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다. 오랫동안 여성에게 따라붙었던 '유혹자'의 개념이 아니라, 주체적 존재로서 동료인간이요, 동료제자로 인정해 주셨던 것이다(마 5:28). 결혼생활에서 정절과 헌신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셨고, 당시 모세 율법에 따라 이혼 증서만 써 주면 이혼을 당했던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주셨다(막 10:11).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여성을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셨다.** 누가복음 13장 10~17절에 '18년 동안이나 귀신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불쌍한 여성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는 "아브라함의 딸"(눅 13:16)이라 불러주는 사건이 나온다. 성경이나 유대 문헌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들'은 모든 유대 민족, 특히 유대 남성의 정체성의 의미한다. 이러한 호칭이 여성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식으로 사용된 적은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에 전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성도 하나님의 선민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당시 유대인 종교지도자 앞에서 선포하여 주셨던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1~47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없고 도리어 그들을 '마귀의 아들'이라고 까지 부르셨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

을 선포하셨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9)"라고 선포하고 있다.

**셋째, 여성을 책임 있는 존재로 인정하셨다.** 예수님께서 당시 여성을 불쌍히 여겨 어린아이를 감싸듯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신 것만은 아니다. 여성도 죄인이며, 구원과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걸 일깨워 주셨다. 간음하다 잡힌 여성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2~11) 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지적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도 이름 없는 죄 많은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의 죄를 공개적으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온다. 예수님은 여성을 낭만적인 대상으로 이상화하지 않고, 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인정하셨던 것이다.

**넷째, 여성을 신학적 대화의 대상으로 삼고 가르치셨다.** 신약시대에 여성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눅 10:39)에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눅 10:42)고 단언하셨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마르다의 입을 통해 사도 베드로 수준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기도 한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27절)처럼 말이다. 이 외에도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수로보니게 여인(마 15:21~28, 막 7:24~30)은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이방 여자였다. 예수님은 그녀의 영적인 총명함과 통찰력을 공개적인 대화로 이끄시며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다. 또한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요 4:7~42)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밝히며 그 여인을 영생으로 이끄셨

다. 거기다 동네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파할 기회까지 허락해 주셨다.

**다섯째, 여성들이 예수님의 수난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 4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건들이 나온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성들은 증인으로 역할한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4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성들은 증인으로 역할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할 때 말이다.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건을 사도들보다도 여성들의 눈과 입을 통해 전파되게 하셨을까? 복음주의 신학자인 핸드릭슨은 이러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 그의 요한복음 주석(요 20:12)에서 "큰사랑에 대한 보답인가? 연약한 믿음에 대한 지원인가?" 라고 질문한다. 이에 답하기를, "이 여성들은 사도들보다 더 큰 인내와 더 큰 충성과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인 예수님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모두를 죄인으로 여겼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고, 말씀으로 교육 받아야 할 존재로 보셨다. 또한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과 다르게, 여성과 남성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로 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라며 인간평등을 선포하셨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여성(아내)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벧전 3:7)고 명령하셨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여성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확증하고 있다. ☺



**김희자**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칼빈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석사,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KSCET) 회장을 역임하고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정보화시대의 기독교 청소년교육』, 『여성과 성직』, 『자녀교육을 깨운다』 등이 있다.



# 빛으로 채운 사랑

20대의 대부분을 성장을 위해  
홀로서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작은 생명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따스한 손길로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대공원을 데리고 다녔던 이모님은  
그렇게 두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오랜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10여년만에 그렇게 재회할 수 있었다.  
희미한 기억속에 자리잡고 있던  
어린시절의 향수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살아난다.

.  
.

따스한 햇살을 머금은 아이의 미소는  
오랜시간 가슴속에 묻고 지내왔던  
그 어떤 아련한 감성들을 자극하고 있었다.

지난세월 벗어나고자했던

긴 어둠의 터널만큼이나

이제는 삶을 돌아보고

함께하는것에 기쁨을 찾아가고 싶다.

## 정일권

일본사진예술전문학교 초상사진과 졸업, 도쿄디자인전문학교 비주얼디자인과 졸업  
블로그 <http://blog.naver.com/sg80350>





## 우리들의 자녀양육 다시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 대다수 엄마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성공한 삶 살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 같다. 자녀의 성공과 경제적인 안정에 목표를 두고, 걱정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한다.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녀들에게 들이는 물질과 심리적 정성과 노력은 각자 다르겠지만 말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입시 문화를 비판하면서, 좀 다른 교육을 하고자 하는 소수의 엄마들도 보게 된다. 그러나 비록 대안적인 교육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믿음과 소신을 지켜나가기 쉽지만은 않다. 성공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녀양육에 대해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들에게 많은 불안과 걱정 근심을 가져다 준다. 어떻게 키우는데 상관없이,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 책임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 부모의 고민과 어려움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진다.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며 주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들에게 자녀양육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하실까?

- 어린 나이부터 각종 학원을 다니며 경쟁을 배우고 학업 성취 위주의 삶을 사는 아이들
- 자녀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는 부모들
- 일하느라, 학원 다니느라 각자 너무 바빠서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부모와 자식들
-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힘든 마음을 갖고 사는 부모들
-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게 학원을 잘 보내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
- 최저생계비 정도만을 벌면서 살 수 밖에 없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들 - 소신껏 자녀를 키우지만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뒤처질까봐 걱정하고 고민하는 엄마들
- 공부를 잘해서 판검사나 되고 돈을 잘 벌지만,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나는 이 글에서 자녀의 '성공적 삶'을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 부모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또한 그 분들의 자녀양육 방식이 옳다 그르다 말하려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들을 어떻게 키우길 원하시는 지 헤아려 보기를 원한다. 매우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더라도, 잠시 멈춰서 자녀양육의 방향성을 한 번 짚어 보면 좋겠다.

먼저 주님이 우리 자녀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한다. 아이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지자는 말이다. 물론 나는 부모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매일 매일 구체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 - 무슨 책을 읽고, 몇 시까지 공부시키고 잠은 몇 시에 자게 하고, 무슨 학원을 보내고, 어떤 친구와 어울려 놀게 하고, 간식은 뭘 먹고, 선생님께는 얼마나 자주 찾아가야 하고 등. 이런 부분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 같은 질문은 할 여유조차 없어진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자녀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특별하게 지으셨고, 각자 고유한 부르심을 주셨다. 부모는 자녀가 이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는 데 오랜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기도(필요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돌봄과 직접 연관 있어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가 이런 근본 질문에 대한 고민과 기도 없이 아이를 키운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자녀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단지 스펙만 쌓으며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의 사명에 관해 탐색하고 고민하는 것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답들을 주시리라 믿는다. 그것도 가장 선한 방향과 계획으로 말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성공이다. 요즘 세상은 물질적인 부가 곧 성공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족 생활과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선 한 사람의 가치가 성적과 학벌, 자격증 등의 스펙으로 결정되는 것 같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뿐 아니라, 유년기 아이들도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타락한 인간은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있을 수 없다.

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까지 과열 경쟁에 합류시키는 경우도 있다. 어려서부터 많은 지적 자극을 받으면 똑똑해진다는 믿음에서다. 하지만 최근 하버드대학에서 수행된 아동발달 관련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학습능력과 복지감, 건강 등은 처한 환경과 경험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세세한 관심을 보이는 안정적인 관계에서 성장할 때, 학습능력이 높아지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도 길러진다. 또 위험이나 두려움 없는 환경에서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자체가 아이의 지적인 성장과 직결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어려서 얼마만큼 배우는가 보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키워지는가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과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그 분이 없는 인생은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도 존재할 수 없고 허무할 따름이다. 또한, 나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타락한 인간은 십자가의 보혈이 없





이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있을 수 없다.

요즘 가족학 심리학자들은 부부관계와 아동발달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부관계가 아동의 복지감과 장기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의 행복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어릴 때부터 공부만 많이 시켜도 좋은 건 따라온다고 확신하다 보니 다른 것에는 별 관심도 없다. 그러나 부모들이 심한 갈등 속에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면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 반면, 부부 관계가 원만한 가정에서는 아이가 안정적이고도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한다. 물론 때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런데 이 때 중요한 것이 부모의 대처 자세다.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느끼는 심리적, 감정적 안정성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지만, 아동의 지적 능력과 복지감 및 건강 등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언제부터 무엇을 가르치냐의 문제가 아니다. 부부의 행복과 자녀양육의 환경이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엄마들이 자녀양육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한다. 일상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서 공부시키고 무엇을 해 줄지에 대한 고민들을 잠시 내려놓고 말이다. 자녀양육은 이런 문제 그 이상의 것이다. 한 개인이나 부모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부모가 부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하다. 이 가운데 사는 부모들이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자녀양육의 문제를 단순히 부모-자식간 관계로만 보지 말자. 하나님과의 관계 및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관계의 맥락으로 사고하게 된다면, 더욱 큰 주님의 축복이 가정과 아이에게 임할 것이라 믿는다. ☺



김건주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브렌디와인 캠퍼스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족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 부부관계, 남성과 아버지, 다문화 가족, 질적연구방법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가족을 읽다, 가족을 위해 읽다

## 결혼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온전합니까?

화려하지만 무거운, 따뜻하지만 잔인한...  
당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자와 남자가 결혼했지만, 서로 깊이 사랑해서 한 건 아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 본 적 없는 같은 회사 동료일 뿐이었다. 그러다 술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한 번의 특별한 만남,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임신. 여자와 남자는 고민하다 '계약 결혼'을 한다. 일단 결혼은 하지만 1년 후 그 결혼을 유지할지 최종 결정을 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가족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한 내용. 회사에는 결혼 사실까지 모두 숨겼다. 하지만 비밀은 폭로되기 마련. 사실을 확인한 동료들은 낮은 축하를 해준다. 허나 그즈음 그들의 결혼은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던 여자는 이혼을 결심한다. 위기 속에서 남자는 여자를 향한 자기 내면의 사랑을 발견하고 고백한다.

최근 중영한 주말 연속극 <오작교 형제들>의 내용이다. 단순히 '드라마니까'라며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내밀한 속내를 알게 해 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결혼'이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이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자신의 생각대로 온전히 행동하며 산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할진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사는 경우가 가능하겠는가.

요즘에는 너무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가장 일반적인 출발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관련 인식이나 태도가 세상과 별 차이 없다는 점이다. 믿음의 가정으로 중심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소개하는 책들을 통해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되기를 기대한다.

### 결혼은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미션 월드라이브러리)를 소개하고 싶다. 저자 프레드 로워리는 “결혼관이 바뀌면 배우자를 쳐다보는 시선도 바뀐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처럼, 결혼과 관련해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은 자기 결혼관을 점검하고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속적인 결혼관에서 성경적 결혼관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핵심 단어는 바로 ‘언약’. 결혼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이해하면, 배우자와의 관계 및 결혼 생활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저자는 바울의 언약 개념을 결혼에 적용한다. 서로 다르고 불완전하며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두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결혼을 법적 계약으로 이해하는 한 불가능하다. 법과 규칙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여기서 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반면 언약은 관계이므로 영구적인 효력이 있다. 바울이 말하였듯,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된다. (엡 2:12 참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언약이 없다면 결혼 생활에 소망 둘 곳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다. 결혼을 깨뜨리는 심각한 위협이 언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언약 없는 결혼은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이 되고 만다는 점이다. 결혼을 부부만의 문제로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이는 무의미해진다. 결혼에 있어 하나님 역시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두 사람만의 결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저자는 일반적인 법적 결혼과 성경적 결혼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 전자는 깨어질 수도 있는 계약 관계지만, 후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언약임을 강조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혼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확고하다. 이혼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피해야 할 죄라는 것이다. 결혼한 이상 최선의 길은 부부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해로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견해를 전근대적이고 편협한 것이라고 평가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요즘의 결혼관과는 크게 다르니, 얼핏 그들의 평가가 옳게 보일 수도 있겠다. 현대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볼 때, 결혼관만큼 세속화된 영역이 또 있을까 싶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사는 것과 시류를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대로 살 의무가 있다.

###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학교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성학자인 게리 토마스의 책 두 권을 소개한다.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좋은씨앗)와 『부부학교』(CUP)다.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비롯, 생생한 사례들을 토대로 결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우리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 그에 따르면,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결혼하는 건지 궁금해지지 않는가? 혹 사랑에 심취하거나 자신만의 행복을 원한다면 2~3년 마다 ‘새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

『부부학교』

로’ 결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저자는 우리 속에 숨어있던 욕망을 들추어내 정곡을 찌른다.

결혼은 과연 무엇인지, 저자의 입을 따라가 보자. 결혼은 한없는 모험의 큰 줄기이며 끝없는 영적 성장의 길목이고, 행복이라고보다는 거룩한 삶을 향한 부르심이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각 사람이 온전하게 서도록 훈련시키는 학교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

그렇다면 배우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을까? 학교에 들어온 학생은 성장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자. 사실 결혼은 우리를 맡겨놓은 상태에 놓이게 한다. 인격적 약점과 죄성이 일상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부에 대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심지어 멸시까지 한다면? 결코 옳지 않다. 결혼이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 뜻에 맞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불완전한 사람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불완전한 부분을 인정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배우자를 변화시킬 순 없다는 사실이다. 우린 다만 자신이 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거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섬겨주는 것,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 등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자. 바로 나부터!

결혼을 부부만의 문제로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이는 무의미해진다. 결혼에 있어 하나님 역시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두 사람만의 결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의 현재 고민과 내면의 깊은 갈등, 혹은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결혼 전보다 배우자에 대해 아는 부분이 얼마나 더 많아졌는가? 결혼 후 10년, 20년이 지났으니 대충 안다고 ‘착각’하며 무심히 넘어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결혼에 주신 소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동하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결혼과 관련한 우리의 얕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배우자를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적극적 자세 역시 꼭 필요하다. 결혼에 관한 우리 중심이 성경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학습하며 책임기를 권하고 싶다. 단순 지식과 정보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책을 읽자. 또한 기존 견해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적 독서라기보다는 생각의 틀을 확장하고 새롭게 하는 발전적 책임기에 도전해 보자. ☺



김건주 본지 편집인, 문화평론가, 목사. 한양대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공부했다. 20년 가까운 시간을 출판기획자, 문화사역자로 사역해 왔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CUP 출판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 누가 너의 가족이냐?

## 〈로열패밀리〉와 〈내 마음이 들리니?〉가 들려주는 가족의 본질

TV 드라마를 둘러싼 가족의 의미. 이를 살펴보는 연재의 본격적인 시작은 가족의 정의로부터 해볼까 합니다. 작년 봄 이맘 때 방송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두 편은 우리에게 “과연 가족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해 줍니다.

### 〈로열패밀리〉의 JK家

첫 번째 드라마는 MBC에서 방송된 미니시리즈 〈로열패밀리〉입니다. 이 드라마는 가상의 JK그룹 재벌가 3세대 이야기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표적 재벌가 자손들이 유산을 둘러싼 소송을 벌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지요. 부자 가족들의 재산싸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작년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형제자매 사이 좋으면 재벌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로열패밀리〉는 얼마 전 높은 시청률 속에 종영한 〈해를 품은 달〉 감독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미스터리 형식의 도입과 완성도 있는 연출로 호평을 받았지요. 이야기는 JK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3남 1녀 사이의 처절한 싸움으로 전개됩니다. 모든 남매들이 서로 경영권을 손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죠. 의사로서 그룹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가 사고

로 일직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거기다 JK가에 들어온 며느리들도 그 싸움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데 큰 몫 합니다. 정계 및 재계에 인맥을 쌓기 위한 정략결혼이었으니 더 그랬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도 철저히 이해득실에 따라 합종연횡\*을 거듭하지요.

**합종연횡(合從連衡)** 중국 전국시대의 최강국인 진(秦)과 연(燕)·제(齊)·초(楚)·한(韓)·위(魏)·조(趙)의 6국 사이의 외교 전술.

이 드라마에서 제일 충격적인 인물은 남편의 뒤를 이어 JK그룹을 이끌어온 어머니 공순호 회장이었습니다. 후계자를 뽑기 위해 자식들 가운데 이런저런 경쟁을 시킨 다음, 막내딸 현진에게 그룹을 물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공 회장은 딸에게 “너 자신을 제외하고는 피붙이라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회사와 너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할 존재일 뿐이다”고 가르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본보기로 일컬어지는 모성(母性)마저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맥없이 힘을 잃고 맙니다.

〈로열패밀리〉속 가족은 비록 핏줄로 얽혀있지만 독립적인 개개인의 집합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이 정의하는 가족이란, 돈과 권력을 향한 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 〈내 마음이 들리니〉의 봉우리네 가족

그런가하면,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 드라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역시 MBC에서 방송되었던 주말연속극 〈내 마음이 들리니〉입니다. 당시 많은 드라마가 ‘막장’이라고 비판받던 가운데, “착한 드라마”로 불릴 만큼 뭔가 다른 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각각 지적 장애인과 치매 노인 역을 맡은 배우 정보석과 윤여정의 연기가 돋보인 작품이기도 했지요.

이 드라마는 정신 연령이 일곱 살에 불과한 아빠를 사랑으로 돌보는 스물다섯 살짜리 봉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봉우리는 그런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차별을 받는 걸 보면 누구보다 앞장서 막아주려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글자를 가르치고 숙제를 내주면서도, 아빠를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 애쓰는 딸이지요. 딸 우리에게 보내는 아빠 영규의 사랑도 눈물겹게 애뜻합니다. 봉우리네 집에는 바보라고 놀림 받는 아들 영규를 평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있습니다. 궁핍한 살림에 남편도 없이 아들을 키우다 보니 어느덧 욕쟁이가 돼버린 억척스런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서까지 가족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봉우리네 가족은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봉우리가 아홉 살 되던 해, 청각 장애인이었던 엄마가 지금의 아빠와

결혼하면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엄마를 잃은 후 우리에게 피붙이라곤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말미에는 영규도 할머니가 낳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지만, 장애 때문에 부모에게서 버림받자 식모살이하던 할머니가 친아들처럼 돌봐온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들리니>는 혈연이 가족의 필요조건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피는 나누었**되 남보다도 못한 가족들을 대비시켜 보여주면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영규네와 한 집 사는 승철이네도 진짜 가족보다 더한 끈끈함을 보여주지요.

가족이 소중한 이유는 최후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가족들에게서만은 인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내 마음이 들리니>가 보여준 가족은 바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이 완전함에 가장 가까운 가족의 모양을 사실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누가 너의 가족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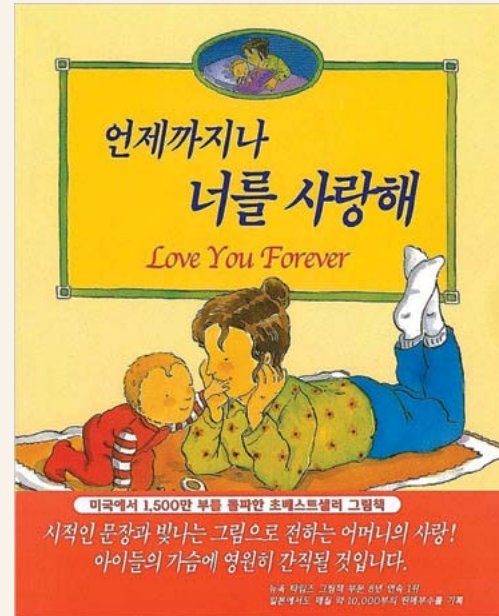
가족은 우리에게 허락된 최소 단위의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보다 남을 우선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손해도 감수하는 등 말이지요. 결코 쉽지 않은 그 사랑의 원리가 가족 사이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게 실천됩니다. 생물학적 관계가 허락하는 본능적 끌림과 오랜 시간을 공유하며 쌓인 친밀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두 드라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지 혈연만으로는 가족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JK家처럼 피붙이 사이라도 사랑 없이 나 자신만을 앞세울 수도 있겠지요. <로열패밀리>는 단지 재벌가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점차 우리 가족의 본질을 파괴해 가는 건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질적 욕망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 이용하려 드는 모습이 비단 재벌만의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가족이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핏줄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들리니>의 가족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돈과 재물이 가족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사랑의 원리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가족이 이 원리를 실천하고 훈련하며, 사랑의 아름다움을 널리 퍼뜨리는 모형으로서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하나님의 가정에서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Love You Forever」  
(로버트 먼치 글, 안토니 루이스 그림, 김숙 역, 북뱅크)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자장 자장 자장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가만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월드 뷰」에서 ‘가족’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이 책을 제일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 작품은 주제도 ‘가족’에 맞을 뿐더러 제가 부모 교육에서 항상 강조하는 바, 그림책이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 때문입니다. 원본은 1986년에, 우리말 번역본은 2000년도에 출판되었으며 오랫동안 캐나다와 미국에서 베스트 셀러였으니 잘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자장 자장 자장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가만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아기는 무럭 무럭 자라나지만 온갖 장난을 치고 떼를 쓰고 버릇이 없어져서 엄마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밤이 되면 아이 방에 살며시 들어가 침대 머리맡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들이 견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해대는 십대가 되었어도 엄마는 밤이면 아들의 방에 들어가 아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 커버린 아들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느덧 장성한 아들은 어른이 되고 집을 떠나 이웃마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머니는 밤이 되면 아들집에 가서 아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곤 아들을 안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어머니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 거동을 못하게 된 어머니는 아들에게 와달라고 부탁하고, 이번엔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자 이번에는 아들이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 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그리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갓난아기 딸을 품에 안고 어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주던 노래를 불러줍니다.

글작가인 로버트 문치는 매우 흥미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1945년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글쓰기를 배운 적이 없고 숫자 세기도 못하였지만 스스로 글을 깨쳐 온갖 종류의 시를 쓰곤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대신 책읽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 예수회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동안 고아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이 바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예수회를 떠나 유아원에서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이야기는 대학에서 1년 동안 아동학을 공부하며 교생실습을 하던 유아원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유아원에서 낮잠 자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유아원장 부인의 격려로 출판사에 보낸 원고가 책으로 출판된 후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책에 실린 노래는 1979년과 1980년에 사산한 그의 두 아이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사랑 노래입니다. 1986년에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 책이 출판된 이후 그 해에만 캐나다에서 3만권이 팔려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1987년도에는 7만권, 그리고 1988년에는 100만권, 그리고 1999년까지 1800만권이 팔려나갔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부모를 위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들의 자식을 위해, 자식은 부모를 위해, 부모

들은 자신의 자식을 위해 이 책을 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책을 구입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이 이야기는 어머니인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에 아들 방에 들어가 침대 밑에 앉아 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불도 바로 펴주고 이마도 짚어본 후 잠자고 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스승과 친구와 선배를 만나게 되기를, 그리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간구하며, 이 아이가 앞으로 꾸리게 될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 아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그려봅니다. 그 동안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기도 하고, 자는 척 하기도 하고, 혹은 깨어있는 것이 들켰다 싶으면 같이 “아멘” 하기도 합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은, 대학 4학년생 청년이지만 이 시간 만큼은 내게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몇 년전부터 이 이야기의 후반부도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부인과 딸 셋을 지극히 사랑하신,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거의 평생 병원 신세를 안질 정도로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몇 년 전부터 다리를 못 쓰게 되고 바깥 출입을 안하시면서 급격히 노쇠해 가셨습니다. 세 딸들을 염려하고 돌보기에 바쁘셨던 아버지는 이제 딸들의 보살핌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딸딸인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품에 안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크고 건강하셨던 아버지의 몸이 어느새 어린 아이같이 조그맣게 되었다는 것을 그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대학의 수업시간에 이 그림책을 읽어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젊은 학생들이리라 아

직 부모가 될 자신의 입장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부모-자녀 관계를 그린 많은 그림책이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 그림책은 부모의 사랑과 부모님께 향하는 자식의 사랑, 그리고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부모의 사랑까지 담은, 호흡이 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학자인 발스워 교수가 쓴 「가족: 현대 가정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2007)라는 책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책무(commitment)로서 설명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무 관계에 들어가지만 자녀가 성숙해가면서 최초의 일방적인 책무는 성숙한 쌍방향 관계로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상호호성은 나이든 부모가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의존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무조건적인 쌍방향적 책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은 저자인 로버트 문치가 기독교인지 궁금해 합니다. 한 때 예수회 사제가 되려고 했었다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작가가 기독교인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기독교인이 썼더라도 좋은 그림책은 좋은 예술 작품, 좋은 책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좋은 그림책은 우리들의 감각과 인식을 풍부하게 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몇 가지 지적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림에 나타난 아동의 행동이 지나치게

버릇없기도 하고 침대 아들의 놀이는 너무 미국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노래로서 이렇게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언제나.  
아빠, 엄마도 너를 사랑해, 언제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 엄마도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엄마가 살아 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하나님은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언제나.  
저도 부모님을 사랑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도 부모님을 사랑해요, 어떤 일이 닥쳐도.  
제가 살아 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부모님”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대표 저서로는 <그림책의 이해 1, 2>, <그림책의 그림읽기>, <세계 그림책의 역사>가 있으며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공존 99x138cm 혼합재료 2011

# 이경림, 심겨진 곳에 꽃을 피우리라

이경림의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는 평상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상식을 뒤집는  
발상과 뜻하지 못한 사실과의 조우가  
신선하게 다가온다.

그의 작품은 골판지의 결합으로 이뤄진 콜라주 작업이다. 골판지를 작품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발상이다. 물건을 튼튼하게 포장하는 용도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너털거리는 골판지는 엉락없이 쓰레기통 속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구질구질한 쓰레기를 보석으로 바꾼다고나 할까. 작가는 재료의 한계를 허들 넘듯 가뿐히 넘어서고 있다. 일종의 폐품 재활용 작업인 셈이다.

하늘은 청명하고, 거리는 무성한 나무들이 즐비하며 활력으로 넘쳐난다.  
 삭막한 도시와는 다르게 각 집의 담장너머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듯하다.  
 이런 그림을 보고 싶다면 정겨운 도시 풍경에 어리둥절해지기까지 한다.  
 작가의 그림에서 도시는 '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섞인 광경이다.

화면은 크고 작은 골판지 조각들이 이웃하고 있다. 대충 열개만 지어진 것 같지만 서로 각을 맞추고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 각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고, 전체는 부분들로 촘촘히 직조되어 있다. 각 조각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자신을 맞춘 듯하다. 인접면과의 조화는 물론이고 전체 구성의 짜임에 맞추어서 말이다. 큰 것은 작은 것에, 직선은 곡선에, 넓은 것은 좁은 것에 각각 맞추며 동행한다. 이렇게 수많은 조각들이 모여야 한 점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 거기에 색채와 패턴, 이미지들을 새겨 넣는다. 어떤 것은 줄무늬와 물방울, 글자, 드로잉, 색칠하기 등으로 화면을 조밀하게 채워간다.

이런 조각모음들로 작가가 나타내는 것은 도시풍경이다. 그림을 보면 화면 중심에 길이 뻗어 있고, 그 주변으로 건물이 들어서 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한 도심 혹은 마을 풍경을 옮긴 것 같다. 일반적으로 '도시'하면 실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과 뿌연 매연으로 가득한 하늘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이경림이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는 전혀 판판이다. 하늘은 청명하고, 거리는 무성한 나무들이 즐비하며 활력으로 넘쳐난다. 삭막한 도시와는 다르게 각 집의 담장너머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듯하다. 이런 그림을 보고 싶다면 정겨운 도시 풍경에 어리둥절해지기까지 한다. 작가의 그림에서 도시는 '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섞인 광경이다.

〈천개의 평화〉를 보면 도시 외곽의 주택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오른쪽에 길목이 보일 뿐 주위는 무성한 나무숲처럼 아기자기한 집들로 뺨뺨하다. 마치 성냥갑을 포개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레고를 펼쳐놓은 것 같기도 하다. 언뜻 보기에 소시민들의 거주지



서울풍경 121x81cm mixed media 2010

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작가는 지붕과 벽을 알록달록한 색상과 화려한 패턴으로 꾸며 놓았다. 그림으로써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도타운 인정을 나누며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곳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동네를 이처럼 형형색색으로 장식한 것은 이 그림이 '행복'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공존〉은 달동네 풍경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다. 가파른 골목을 끼고 좌우에 주택이 들어차 있다. 그 혼한 기와집은 찾아볼 수조차 없고 간간이 집안의 나무들이 보일 따름이다. 가파른 언덕위에 간신히 자리한 집이 있는가 하면, 집과 집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도 없이 밀집된 데도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고달픈 인생살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느낌도 잠깐, 작가는 한 채 한 채의 집마다 예쁘게 색칠을 하고 단장을 한다. 그리하여 우중충한 느낌을 말끔히 지우고, 돌연 이곳을 희망 찬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동네의 '그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꿈을 잃지 않고 곳곳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비록 지상의 삶이 곤궁해도 범사에 감사를 느끼기에 삶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런가 하면 <서울풍경>은 동산 아래로 동지를 뜬 어느 마을을 읊긴 것이다. 뒤로는 우람한 산과 야트막한 동산이 보이고, 그 앞으로 색동옷 입은 가족들이 길을 마주하고 죽 늘어서 있는 작품이다. 앞 작품이 달동네라면, 이 작품은 한적한 마을을 나타냈다. 그는 여기서도 다른 작품과 비슷하게 눈을 사람에게로 돌린다. 물론 어떤 사람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사람은커녕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



천개의 평화 158cmx294cm mixed media 2011

도시는 인간의 두 얼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도시 외면은 화려하고 멋지지만 내면은 빈곤하고 험악하다. 도시에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경쟁자로 인식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도시를 혹도미에\*나 쿠르베\*가 그렸다면 매우 신랄한 비판과 조소의 대상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다. 도시생활을 혐오한 밀레가 아예 시골에 들어가 농촌화가 돼 버린 것은 단순한 충동이나 일시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도시는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서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의 서식처이다. 또는 리처드 에스테스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휘황찬란하지만 높은 건물과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역대 화가들은 도시가 얼마나 황폐하며 물질화되어 있는가를 직시하였다. 우리가 사는 주위를 돌아보아도, 그들의 시각이 엉뚱하다거나 빗나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관점은 대체로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종의 뇌관처럼 여기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경림은 도시에서 꿈을 찾는다. 도시의 문제를 들추어내기에 앞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끄집어내길 바라는 것이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평화가 강물처럼

**도미에, 쿠르베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들**

그럼에도 이 그림에는 소망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작가가 내적인 눈으로 본 세상을 표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요, 언약이 성취될 무대다. 믿음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엔 희망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다. 그가 도시를 밝게 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리라. 세상이 불의와 죄악으로 사라질 곳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세상을 이처럼 낙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럼 흐르고 사랑을 만선으로 싣고 귀향하는 모습이다. 그러기에 작가는 아무리 험한 도시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루벤 알레스(Rubem Alves)가 “소망은 미래를 향한 음악이며, 믿음은 그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이다”고 말한 것처럼, 소망과 믿음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익히 알고 있는 도시와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소동이 단절되고 삭막한 곳이 아니라, 이야기꽃이 피어나고 사계절 생동감이 솟아나는 곳으로 말이다. 그에게 도시는 절망의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이다. 왜냐하면 집들이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퍼즐에서 한 부분을 빼내면 전체가 망가지게 되듯, 그의 그림에서도 어느 한 곳이 빠지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없어서는 안 될 대상으로 존재한다.

이렇듯 작가는 소망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믿음의 리듬에 스텝을 맞추어 ‘별로 가는 여행’을 시작한다. 아무리 황폐한 도시라도 그 속에서 희망의 싹을 보면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에서 죽은 뼈에 힘이 불고 생기가 불어 살아가는 것을 본 것처럼(겔 37:1~14),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상상하며 구상한 것 같다. 그 많은 재료 중에서도 굳이 성치 않은 폐품을 선택한 것, 혹은 이를 다시 찬란한 존재로 바꾼 것은 ‘회복’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이유가 아니라면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작가는 만신창이의 골판지를 재생하여 멋진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거주하는 도시가 정말 ‘생기 있는’ 도시로 재탄생될 것을 소망해 본다. 그런 곳에선 어떤 사람도 무한경쟁으로 실의에 빠지거나 익명을 가장해 타인을 무차별 공격하는 일, 혹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는 등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가 바라는 도시란 단순히 ‘살기 좋은’ 도시라기보다는 에스겔 골짜기처럼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돌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염원이 이런 염원이 부푼 기대감으로 전달돼, 그의 그림을 한층 기운차게 만드는 비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㉞

이경림은 도시에서 꿈을 찾는다.

도시의 문제를 들추어내기에 앞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끄집어내길 바라는 것이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랑을 만선으로 싣고 귀향하는 모습이다.

그러기에 작가는 아무리 험한 도시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서성록 인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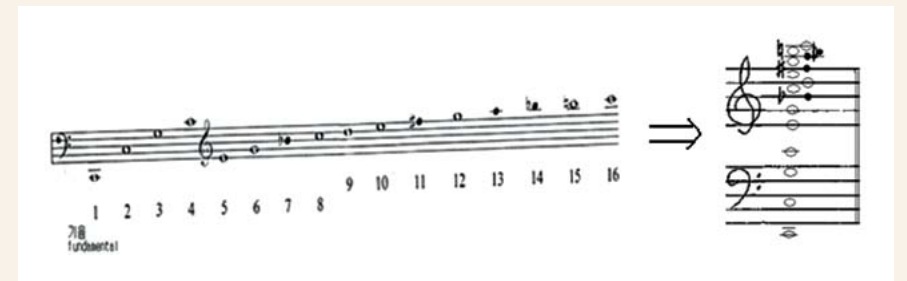
# 배음과 오케스트레이션

## Orchestration

지난 글에서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음향이 완벽한 수학적 질서를 가지고 있고, 이 수학적 질서위에 음악의 심미성이 세워짐을 알아보았다. 또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음향홀은 자연음향 현상인 배음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실제 공간임을 발견하였다. 이 음향의 법이 공기가 있는곳에서는 어디서나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법을 운행하시고 매순간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이번 글은 오케스트레이션(예, 여러 악기의 오케스트라로 편성하는 것)과 배음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일차적으로 악기의 화음의 배분이 저음에 집중된다던가(아래의 베토벤의 미사곡) 고음에 집중된다던가 전 음역에 고루 편성된다던가(브람스) 성기계 편성되거나(모짜르트 교향곡) 밀도가 높게 편성이 되는가에 따라 곡은 가볍게 들릴수도 무겁거나 중후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한 효과(저음에 밀집되는 천둥, 죽음 묘사나 고음에 밀집되는 새소리 묘사 등)를 필요로 하는 곳을 제외하고 대개는 배음간격대로 아래가 넓고, 대개 근음(가장 많은 배음-1,2,4,8,16)을 중복한다. 아래 악보 우측은 배음을 수직으로 쌓은 것이 배음 간격을 잘 보여준다.



곡이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많이 있다. 편성 이전에 곡의 차이는 작곡가의 차이이고 작곡가의 차이는 주로 작곡가가 활동하던 나라나 시대와 연결된다. 예를 들면, 바하(바로크)와 모짜르트(고전)가 다르고, 드뷔시(프랑스)와 바그너(독일)가 그러하다. 또 다른 차이를 들면 곡의 장르(예, String Quartet, symphony, piano concerto 등등)나 스타일(monophonic 과 polyphonic)에 따라 곡이 다르게 들릴 것이다. 당연히 장르 경우 연주하는 악기가 다르기 때문이고 악기의 수도 차이가 난다. 혹은 단선율인지 다선율인지, 화성적인지 대위적인지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르게 들릴것이다. 스타일만 보더라도 시기, 화성, 리듬, 선율, 음색, 형식, 음질 등으로 나누어 곡을 이해한다.



아래 악보는 모짜르트(교향곡 41번 “주피터”, 4악장 마지막 화음), 베토벤(장엄미사 마디 1과 21 화음), 브람스(교향곡 3번, 1악장 마지막 화음)곡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실제 악보의 간격을 비교하기 위해 음표의 머리만을 모아 수직화음으로 배열한 것이다.

모짜르트의 악보는 타 곡에 비해 음이 성기고 저음은 배음과 비슷하나 윗 배음이 적다. 그러나 근음을 안정적으로 중복한다. 그래서 가볍고 맑은 소리가 난다. 브람스의 악보도 배음과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으나 모짜르트 곡보다는 밀도가 높다(다른 악기에서 같은 음 중복). 밀도가 높다는 것은 모짜르트 편성보다 풍부한 배음을 가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중후하거나 푸근하게 들리 수 있다. 반면 베토벤의 곡을 보면 두 곡과 달리 제 5 배음에 해당하는 “미”(도미솔 화음의 “미” 즉 음도3<sup>^</sup>에 해당하는, 이곡이 D 장조이므로 여기서 “F#”)를 가운데 “도” 밑음역에서 하고 다른 악기로 중복하고 있다. 이 곡과 달리 브람스곡은 더 안정적인 제 3 배음인 “솔”(도미솔 화음의 “솔” 즉 음도5<sup>^</sup>에 해당하는, 이곡이 F 장조이므로 여기서 “C”)을 중복한다. 결과적으로 베토벤의 편성은 인위적인 편성으로 다른 두곡의 색깔보다 덜안정적으로 들리거나 무거워진다. 왜냐하면, 제 5 배음(중복수 2개)이 저음 영역에 위치하여 그 음에 해당되는 배음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 화음에 또 다른 배음이 공존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의 악보는 Samuel Adler의 The Study of Orchestration, 2nd addition, Mozart-p.488, Beethoven-p.473, Brahms-p.475에서 발췌한 것이다.

**Mozart, Symphony No. 41, “Jupiter,”  
fourth movement, final ch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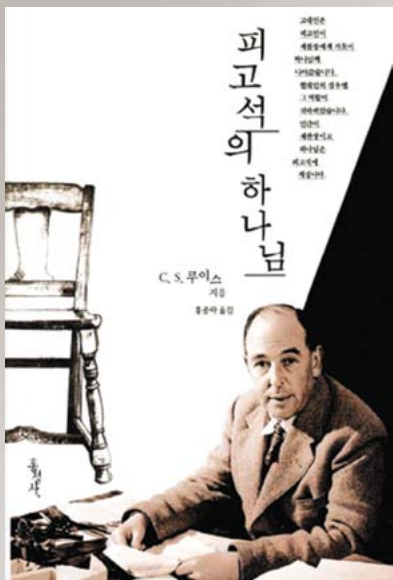
**Beethoven, Missa Solemnis, chords from m. 1 and m. 21**

**Brahms, Symphony No. 3, first movement,  
final chord**

배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 음향현상이다. 음색이 밝고 어둡거나, 가볍고 무거운 이유는 배음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음의 중복과 배열에 있다. 음색의 차이가 작곡가를 구별하거나 시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아름답고 다양한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민족의 음악, 서양과 동양, 아프리카, 남미를 넘어 모든 음악은 아름다움의 이름으로 물리적 수학적 원리롭게 하나님을 드러낸다. ☺



**이경원** 한양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음악 작곡 석사 및 박사(DMA) 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및 대학원, 단국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필라델피아 St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챔버 코치를 거쳐 현재 하늘소리 홀스쿨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음악(원제: Sound Stewardship)(DCTV)』이 있다.



## 피고석의 하나님

C.S. 루이스 지음 | 홍종락 옮김 | 홍성사 펴냄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본서 제2부에 나오는 글에서 따온 것이다. 사실 책의 원래 제목은 '현대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할 때 만나는 어려움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후퍼가 이를 '피고석의 하나님'으로 바꾸었다.

C. S. 루이스(1898~1963)는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다. 제임스 패커는 그를 '20세기 복음 주의계의 아우구스티누스'라 불렀으며, 콜린 듀리에즈는 '20세기의 존 번연'이라 명명한 바 있다. 루이스의 글을 읽고서 험난한 신앙 여정에서 도움 받았음을 고백한 현대 크리스천 저술가들도 적지 않다. 1958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선교사가 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이 C. S. 루이스라고 답하기도 했다.

루이스는 자신이 후일 이토록 큰 영향력을 끼치리라고는 전혀 상상 못한 것 같다. 변호사인 친구가 저서의 로열티를 사후 어떻게 배분할 생각이냐고 묻자, 그 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죽고 5년쯤 지나면 아무도 내 책을 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루이스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50년이 흘렀어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특히 그의 가장 유명한 소설 『나니아 연대기』가 영화화되면서 한국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2005년 <나니아 연대기1: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을 시작으로, <나니아 연대기2: 캐스피언 왕자>(2008)와 <나니아 연대기3: 새벽 출정호의 항해>(2010)가 잇달아 개봉되었다. 시리즈 4로는 <마법사의 조카>가 2014년 개봉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루이스는 "나의 내부에는 기독교 변증가, 문학평론가, 그리고 작가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작가로서의 나'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나니아 연대기』 외에도 『순례자의 귀향』,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우주 소설 3부작 (Space Trilogy)』 등을 집필하였다. 한편 그는 기독교 지성인들이 지향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가장 훌륭한 모델을 제시한 학자이기도 하다. 작가이자 변증가인 루이스의 큰 영향력은 그의 지적 혹은 영적인 독특한 이력과도 관련된다. 그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방향을 거쳤기 때문에 '회의론자들의 사도'라 불리기까지 한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작품은 이러한 자신의 신앙 역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영적 자서전'이라 할 수 있다.

루이스는 회심한 바로 그 해부터 기독교 신앙의 전도자가 되길 원해, 기독교 작가이자 평신도 신학자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단히 예리한 지성의 소유자이면서도 단순하고 담백한 문체로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독자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또한 특정 교파의 교리 혹은 한 개인의 신학관보다는 '순전한 기독교'를 강조했다. 이는 각기 다른 전통의 다양한 교파나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 온 기독교를 가리킨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루었던 내용도 바로 그러한 것이다.

『피고석의 하나님(God in the Dock)』은 루이스의 글 모음집으로, 월터 후퍼가 오랜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다양한 간행물과 신문을 뒤지며 재발굴해 편집했다. 그는 루이스 말년에 개인 비서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루이스 연구가라 할 수 있다. 33세의 나이로 회심한 루이스는 신앙에 대한 강연이나 글 요청을 거절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글과 말을 전할 수 있었다. 이 모음집은 다양한 청중만큼 다채로운 주제와 형식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후퍼는 24년에 걸친 발표문과 기고문을 비롯해 편지글, 그리고 인터뷰 내용 등의 글을 루이스의 육성처럼 전한다. 독자들에게 루이스를 좀더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셈이다. 본서의 1부는 명확하게 신학적인 내용의 에세이를, 2부는 반(半)신학적인 글, 3부는 윤리문제를 다룬 글, 4부에서는 신학과 윤리 문제로 신문과 잡지에 투고한 루이스의 편지들을 실고 있다.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본서 제2부에 나오는 글에서 따온 것이다. 사실 책의 원래 제목은 '현대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할 때 만나는 어려움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후퍼가 이를 '피고석의 하나님'으로 바꾸었다. 이 글에서 루이스는 현대인에게 죄의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초기 기독교 설교의 청중들은 유대인이건 이교도이건 죄책감이 있었기에 기독교의 메시지가 복음(福音)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인은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지도 못한다. 때문에 우선 그들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진단을 내려줘야, 치료 소식을 반기리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 하나님이나 신들에게 나아갔다. 하지만 현대인의 경우엔 오히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신다. 전쟁이나 가난, 질병을 허용한 잘못에 대해 하나님이 조리 있게 항변(?)하면 사람인 우리가 귀 기울이며 판단한다는 얘기가 있다. 또한 복음을 듣는 이들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을 역설하기도 한다. 가령 자만, 원한, 질투, 비겁함, 비열함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루이스는 1942년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에 옥스퍼드 소크라테스 클럽에 참여하였다. 이 모임은 기독교와 관련된 지적 난제들을 공개적으로 토

론할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옥스퍼드 대학 당국이 설립한 것이었다. 한 주는 기독교인이 논문을 발표한 뒤 이에 대해 불신자가 답변하고, 그 다음 주엔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의 논문 발표 후 기독교인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루이스는 이 모임에서 클럽 회장 및 지도교수 자격으로 참여했고, 자신이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겨간 1954년까지 모임을 주도했다. 이를 통해 기독교가 지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옥스퍼드 대학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학문 영역에서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석의 하나님』에는 이와 관련된 글들도 실고 있다. ‘소크라테스클럽의 설립’은 이 클럽의 기관지인 《Socratic Digest》 창간호에 실린 루이스의 머리글이다. 그리고 뒤이어 실려 있는 〈교리 없는 종교?〉는 루이스가 1946년에 이 모임에서 발표한 글을 후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서는 딱딱한 이론만을 담은 책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고통에 대한 루이스의 실제적인 충고다. 어느 신우회와 가진 만남에서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자신이 부당

“자신이 부당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분개하거나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별, 질병, 가정불화, 노동 조건, 다른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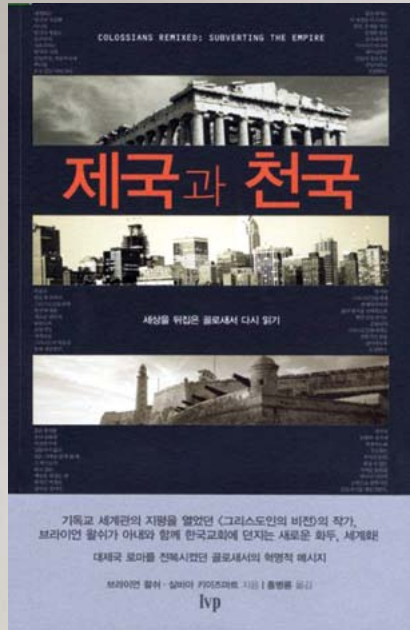
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분개하거나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별, 질병, 가정불화, 노동 조건, 다른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란 경제적 부를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행운, 건강, 인기를 비롯해 사람이 원하는

는 모든 것, 즉 모든 의미의 부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돈과 마찬가지로, 이를 소유한 사람에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들

을 가졌으므로 인생에서 이미 행복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마음이 나지 않으니,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덧없는 행복에 안주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짜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모든 ‘부’들을 우리에게서 빼앗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오르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장소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곳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곳을 훈련과 교정의 장소라고 생각하면 그리 나쁜 곳이 아닙니다.”



**송태현**  
프랑스 그르노블대학교에서 상상력이론을 공부하고 〈질베르 뒤랑의 문예비평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 저서로는 『판타지, 톨킨, 루이스, 롤링의 환상 세계와 기독교』, 『이미지와 상징』, 『상상력의 위대한 모험기들』 등이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문화예술분과장으로 섬기고 있다.



## 제국과 천국

브라이언 왈쉬 · 실비아 키이즈마트 지음  
홍병룡 옮김 | lvp 펴냄

브라이언 왈쉬와 실비아 키이즈마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16세기 전에 구분했던 두 나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 바로 '제국과 천국!' 천국(the kingdom of Heaven)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제국(the empire)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정치·사회경제·군사·생태학적 삶의 총체다.

### 『신국론』의 맥을 잇다

이 책은 『신국론』(De civitate Dei)의 맥을 잇는 책이다. 5세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civitas Dei)'와 '땅의 나라(civitas terrena)' 간 대립으로 보았다. 두 나라는 분리된 실재지만 세상 끝 날까지 현실의 국가 안에서 함께 공존한다. 하지만 서로 명백히 다른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땅의 나라는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건설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amor Dei)이고 땅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자기애(amor sui)이다. 중요한 것이 두 나라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점이다. 하나님 나라든, 이 땅의 나라든 둘 중 하나이지 제 삼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둘은 역사 속에서 공존하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야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이 책의 공저자 브라이언 왈쉬와 실비아 키이즈마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16세기 전에 구분했던 두 나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 바로 '제국과 천국!' 제국(the empire)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정치적·사회경제적·군사적·생태학적 삶의 총체다. 천국(the kingdom of Heaven)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골로새서에 표현된 바에 따르면, 천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나라(1:16). 또한 예수님에 의해, 자기를 창조하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3:10) 사람들의 나라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되기에 평화와 겸손, 섬김이 넘친다. 그러나 제국은 무한한 진보와 확장의 신화로 무장하여,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국은 1세기의 로마이거나 20세기 말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일 수도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현실일 수도 있고, 상당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일 수도 있다. 두 나라의 존재방식과 성격은 처음부터 대립된다. 때문에 두 나라를 모두 만족시키려는 크리스천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이다.

### 『골로새서』의 탈굴적 해석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1982년 캐나다 맥길대학의 박사과정 학생 브라이언과 당시 영국의 젊은 성경학자 톰 라이트와의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톰은 틴데일 주석 시리즈 가운데 골로새서를 쓰고 있었는데, 브라이언에게 자기 글을 읽고 의견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하여 골로새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톰의 원고는 일반적인 주석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사성도 띠고 있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골로새서의 말씀이 오늘날 현실에 어떻게 상응하는지를 물으며 더 나아가길 원했다. 가령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현재 어떤 세력에 해당하는가?'처럼 말이다. 한편 실비아라는 여성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톰의 지도 아래, 옥스퍼드대학에서 이 주제를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얻었다.

1993년 브라이언과 실비아는 결혼을 하고, 토론토대학과 기독교학문연구소(ICS)에서 가르치며 리디머(Re-deemer)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들의 성경해석을 가정과 공동체 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왔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과 집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안식을 제공했다. 이 책은 그런 성경해석과 실천의 산물이다. 브라이언과 실비아는 이러한 성경해석을 '탈굴적'이라고 부른다. 탈굴(Targum)이란 A.D. 1~3세기에 아람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던 팔레스틴과 바빌론 유대인들의 구약성경이다.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고 본문 사이사이에 자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이 해설은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시사적이고 구체적이었다. 브라이언과 실비아는 이 탈굴 번역의 전통을 되살려서 골로새서에 대한 주석을 시도한다.





“세계화된 경제와 사이버네틱 혁명이 결정적으로 입증하듯이, 현재는 정보테크놀로지를 등에 업은 경제적 결정론이 세계의 주권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예수를 우주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에 걸맞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 골로새서의 제국과 천국

브라이언과 실비아는 골로새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다. “그리스도가 진정 만물의 창조주요 구속자라면, 그처럼 놀랍도록 포괄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생태학적·정치경제적 삶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13)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골로새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다. 알다시피 골로새서가 쓰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다. 로마는 군사력과 기술을 통해 세계를 정복했고, 황제를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요 신(Deus)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로마 번영의 그늘에는 파괴된 도시가 있었고, 노예로 전락한 주민들과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는 소작농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 생겨난 골로새 교회는 새로운 세계관과 삶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사회 지위에 상관없이, 서로를 돌보며 가진 것

을 나누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병자들이 치유되기도 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하며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베풀었다.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로마 제국의 분위기와는 다른 사랑과 희망이 넘쳐났다.

### 오늘날도 천국이 가능할까?

이 책의 후반에 가면 브라이언과 실비아의 질문은 더 현실적이 된다. “세계화된 경제와 사이버네틱 혁명이 결정적으로 입증하듯이, 현재는 정보테크놀로지를 등에 업은 경제적 결정론이 세계의 주권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예수를 우주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에 걸맞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164) 오늘날 제국은 군사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기술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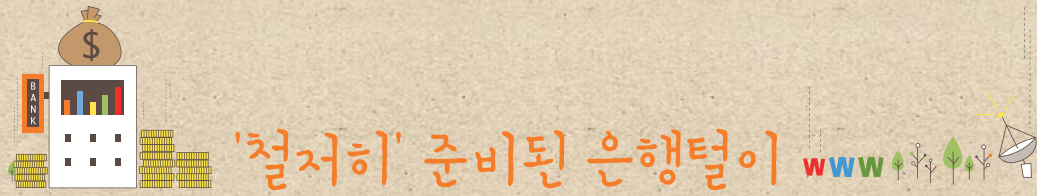
주의, 경제주의 같은 이상들을 통해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 이 제국의 퍼사드(facade)\*는 부와 권력과 명성, 섹스와 신나는 오락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뒷골목은 ‘서로를 잡아먹고 약탈하는 문화’에 의해 살해당하고 훼손된 시체로 가득하다. 과연 교회는 제국의 지배를 박차고 나와 천국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제국의 탐욕에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교회도 군사력, 인종과 민족, 기술과 경제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도 세계화의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세계화의 긍정

적인 실재와 그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바로 분별하는데 있을 것이다! 물질과 부를 악마로 보지 않되, 그것을 최고로 숭배하는 이데올로기와 문화에서 벗어나는 길 밖에 없다. 이 책은 제국과 사이 좋게 지내며 제국의 깃발 아래 번창하고 있는 교회에 던지는 도전장인 동시에 호소문이다. 오늘의 교회가 이 도전과 호소에 귀를 기울인다면 천국은 가능할 것이다. ☺

**파사드(facade)** (건물의) 정면. (실제와는 다른) 표면, 허울



**최태연** 백석대 기독교철학 교수이며 한기독교회 목사이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및 Th.M. Cand.,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Paul Ricoeur의 해석학 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운영위원 및 이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며 세계관운동 교육과정개발위원장과 CUP 출판위원,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이론분과위원장, 한국기독교철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났다 한다. 세 강도가 은행을 털기로 모의 했다.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과거에 실패한 경험과 그 동안 터득한 지혜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고 그에 대해서 철저히 면밀하게 대비책을 마련했다. 우선 좀 으스스한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경찰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간이은행을 목표로 정했다. 몇 주간 세심하게 관찰한 끝에 현금이 가장 많으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적게 드나드는 시간도 알아냈다. 그리고 시내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경찰의 관심이 다른 곳에 집중될 날도 알아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끝에 드디어 거사일(D-day)이 왔다. 정해진 시간에 타고 간 차를 은행 건물 앞에 세우고 복면을 한 채 권총과 돈 자루를 들고 손살 같이 건물로 향해 돌진하였다. 그런데 딱 하나 그들이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 전 날 은행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한 것이다. ㉞



교훈 만사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직도 은행들이 남아 있으니!



### 월드뷰 3월호 사과문

지난 호 손봉호 이사장님의 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가정”에서 일부 단락이 누락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과를 드리며 원문을 다시 게재합니다.

큰 아이의 벨기에 유학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기에 해명하려 한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교수 월급으로 어떻게 아들을 해외에 유학시킬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우선 큰 아이는 내가 교수로 있던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지금은 그 대학에서 그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그 때는 아직도 그런 특혜가 있었다. 아이 대학교육을 공짜로 시킨 것이다. 그리고 벨기에는 대학에서 등록금을 일체 받지 않는다.

## WORLDVIEW NEWS



### Janel M. Curry 박사 좌담회

4월 19일 오전 10시, Janel M. Curry박사 (Calvin College 석좌교수)와 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소속 교수들의 좌담회가 미국 대사관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Christians and Climate Change(그리스도인과 기후 변화)>입니다. Curry박사는 지난 사십 여 년 동안 종교와 환경문제 사이의 관계와 역할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접근 방식을 연구 하였습니다. 4월 16일에는 한동대학교에서 강의를 있습니다.



Scott Sunquist Ron Cole-Turner Timothy Son

### 국제 심포지움 개최

피츠버그신학대학원 교수들과 함께 하는 국제 심포지움이 4월 20일~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주제는 “다문화시대의 기독교 선교(기독교 교육)의 활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추후 회원들에게 메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앙과 학문 17권 1호 발행

학술동역회 '신앙과 학문'의 새로운 편집위원장으로 이견창 교수(성균관대 경영학과)가 임명되었으며, 지난 3월 30일에 17권 1호를 발행했습니다. '신앙과 학문'의 논문은 상시 접수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투고를 요청합니다.



###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매년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가 올해에는 중국 절강대학교 기독교및타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준비하며 5월 18(금)~19(토) 이틀간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18일에는 국제학술대회로, 19일에는 세계관동역회의 기독교학문연구회 분과별 논문 발표와 대학원 세션으로 진행합니다.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7기 개강

미디어를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펼쳐가는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7기가 4월 7일 개강식을 갖고 시작됩니다. 이번 7기부터는 새롭게 심화과정을 추가 개설하였으며 교육장소는 양재동 서울국제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 VIEW 소식

3월 5일 열린 제3회 Worldview Colloquium에서는 울산 다운공동체교회 박종국 목사(1회 졸업)가 기독교 세계관적 목회의 적용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한편 3월 12일부터 5일간 진행된 WVS602(Worldview in the Marketplace) 과목은 일터신학의 대가인 폴 스티븐스 교수가 강의를 맡아 원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4월에는 연중 가장 큰 행사로서 원우회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Worldview Conference가 13일에 마이클 고힌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회원후원

2천 안지혜, 2천5백 김민지, 박진호, 천하은, 3천 구재형, 김성권, 김찬호, 김창현, 윤경선, 정필규, 조성진 3천5백 노승욱, 백경은, 백선희, 오영숙, 유경상, 정경식, 정세열, 진성자, 최승오, 최원길, 한민화, 한진영, 5천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길원평, 김경식,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봉오, 김상욱, 김성민, 김성은, 김성찬, 김영운, 김정명, 김정심, 김정준, 김준, 김준희, 김철수, 김태운, 김혜창, 김효태, 마민호, 박광재, 박기연, 박승룡, 박준도, 박천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백동희, 범정철, 손세용,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철호, 신기혁, 신찬용, 심정하, 안현상, 양영태, 유창은,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택재, 이명진, 이민화, 이승환, 이영홍, 이원배, 이윤희, 이은미, 이은순, 이인수, 이진영, 이한길, 이향숙, 임선재, 임재영, 임준택, 임형준, 장현일, 전정진, 전충국, 정범채, 정수빈, 조인진, 조창근, 조혜경, 주경식, 지경순,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최유,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황나란 1만 강용상, 강은정, 강효식, 고은님, 고현정, 권민규, 권성이, 권순범, 김경희, 김광순, 김성경, 김성상, 김성일, 김세원, 김세준, 김영애, 김영완, 김은순, 김은혜, 김경란, 김정일, 김정호, 김효섭, 김효숙, 남서희, 류화원, 박강국, 박대원, 박두환, 박시은, 박종원, 박창우, 박한배, 박혜경, 서화진, 소중화, 송승철, 신상형, 신성혜, 신현주, 신호기, 안석, 안용준, 양병국, 양성만, 양성일, 양혜원, 오충철, 원호영, 유진호, 유영준, 유지황, 유혜무, 윤동수, 윤매옥, 이경숙, 이관후, 이규현, 이길형, 이명동, 이명수, 이명현, 이성수, 이승열, 이시영, 이운석, 이운재, 이정규, 이정길, 이종국, 이지연, 임일택, 임지연, 임지연, 장승재, 장우경,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태수, 정은희, 정정숙, 정현주, 제양규, 조백형, 조용현, 조은아, 주성철, 최복림, 최삼열, 최영찬, 최유준, 최절임, 최진우, 최한빈, 한인관, 한정호, 한혜실, 허찬영, 현승진, 홍선호, 황태연,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이상미 2만 강대훈, 김영화, 김옥태,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김태우, 노용환, 박영혜, 박한, 배은경, 반우진, 우시정, 이대환, 이명희, 이인주, 이현정, 정상록, 추진연, 허현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승남, 명운수, 박문식, 박상진, 박신현, 박연호, 서성록, 신효영, 오의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이창국, 이현옥, 임희옥, 장수영, 정동섭, 정은애, 조무성, 추태화, 황의서, 황정진, 5만 김성락, 김시호, 서진희, 송인규, 신국원, 윤석찬,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운식, 현은자 6만 강영택, 김희연, 임윤희 10만 김승태, 김원수, 김의원, 박상은, 손봉호, 양인평, 양혜원, 전광식, 한정화 15만 양승훈 20만 차명실 100만 김승욱 500만 손봉호

### 기관후원

20만원 빛과소금교회 30만원 두레교회 50만원 개봉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예수교회, 중앙대학교교회, 10만원 남서울교회, 남서울예교회, 명성교회, 산정현교회, 새로남교회, 샘물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자은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참빛교회, 20만 국군중앙교회, 군산성광교회, 언약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박혜경, 70만 사랑의교회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보고는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들을 풀어내는 유일한 기독교세계관 잡지 <월드뷰>.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동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방문하시거나 CMS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월드뷰>의 비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CMS 출금이체신청서

|           |        |  |        |                 |
|-----------|--------|--|--------|-----------------|
| 회원<br>신청서 | 상호(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           | 이 메 일  |  | 출금일자   |                 |
|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           | 계좌번호   |  | 월납입일   | 매월/ □ 25일 □ 30일 |

【06 출금계 약관】 1. 위의 본인계좌에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지 없이 본회의 지정출금계에서 수납기 전인 지정출금일(출금일) 이후 다음 영업일에 출금계 납입해주십시오. 2. 출금계별 지정출금일의 예외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외일이나 약정시 규정의 불특고 예외일(수납기)이 수납일이 출금계 차입잔액에 의해 출금해도 이익이 없습니다. 3. 출금계 지정출금일의 예외일(수납기)이 있는 경우 대출도 포함 지정출금일 현재 수납금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외의 지급(한도 또는 약정)의 연체 등으로 인해 수납기 불충분한 경우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은행과 관련하여 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 제공 거부권을 출금계별 신규 신청하는 손해는 본인 책임으로 하십시오. 4. 지정출금일에 입금된 수납의 출금계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일 전 수납은 구별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십시오. 5. 출금계 신규 신청에 의해 계좌 또는 수납금의 상태에 의해 계좌가 수납기 전으로 처리된 시점부터는 출금을 취소, 해지할 수 없습니다.

위 CMS 출금이체 약관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따라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 독자후기

### <월드뷰> 2월호 김창현\_광주, 대학원생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꾸미지 않은 해맑은 미소 사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기독교세계관이란 것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학문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지기 쉬운데 인터뷰하신 분들의 사진들을 통해 좀 더 친근하고 인간적이 분위기를 잘 살리는 거 같아요. 표지에 '일과 일터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소제목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학문과 신앙의 통합된 삶을 꿈꾸며 선택한 대학원 생활이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학문과 신앙의 통합 이전에 먼저 나의 삶과 그리스도를 향한 저의 믿음이 통합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요. 그런 점에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말씀이 많은 격려와 힘이 됐네요 "일터 영성 부분은 이 세상에서 일터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험하라, 선배들 눈치보라 하며 주일 교회 참석을 잘 못할 때도 있었는데 예배는 장소 이전에 마음가짐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목사나 선교사는 높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낮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최하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는 훌륭한 직업이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과학자,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지만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교수님의 위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직업을 구별하시지만,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격려가 함께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교수님에 일터 신학 관련 책 소개도 참 좋았습니다. 하나하나 사서 읽어보고 더욱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고민하고, 열심을 내어야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잡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도 이 영역 가운데 저의 부족한 능력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준비하겠습니다.

\* 김창현님께 『조지 맥도널드 선집(홍성사)를 독자후기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 <월드뷰> 3월호 조영숙\_평택, 어린이집 원장

배우자의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구?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구? 이게 무슨 소리야? 나의 생각과 아주 다른 객관적인 사실들이 (가족이란?)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나를 자극 시켰다. 가족의 개념이 동거의 개념으로 바뀌는 현재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논할 수 있을까? 한그루의 나무를 보아도 깊고 넓게 파고들어간 뿌리가 있으므로,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동거개념의 가족관은 뿌리조차 없는 나무가 아닐까? 염려를 가지며 고통화의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속에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의 노후도 더불어 염려가 된다. 그래도, 가족 <하나님의 광야학교>를 통해 현재 우리 가족의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라는 글을 읽으면서 "정말 나의 생각과 같다"라고 맞장구를 친다. 가족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한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 자녀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책임져야 하는 것이 부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소명을 잘 발견하고 그 소명을 향해 정직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는, 부부관계보다 자녀를 우선시하고 세속의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월드뷰 3월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관계와 질서 및 역할이 세상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의 성공이라는 경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현주소를 보면서 왠지 쓸쓸한 마음을 지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의 관계로 회복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치열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제시하는 작가의 의견에 큰소리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고 싶다.

\* 조영숙 원장께 『어머니, 당신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꿈을 이루는 사람들)를 독자후기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 \* 편집부에서는 독자들의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뷰를 읽고 느낀점이나 바라는 점을 이메일(info@worldview.or.kr)로 보내주세요.
- \* 독자후기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 독자후기를 보내실 때는 이름과 전화번호, 직업,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열개를 살리고, 캐릭터에 생기를 불어넣은 소설

# ‘위대한 2인자’ 시리즈 완간!

아론, 갈렙, 요나단, 아모스, 실라의 삶을 소설로 만나다!



모세를 질투하던 형에서 거룩한 동반자가 된 제사장, 아론  
믿음으로 혈통의 벽을 뛰어넘은 영원한 청년, 갈렙  
다윗 왕조의 문을 열고 부서져 간 왕자, 요나단  
삼꾼 예언자들과 맞선 하나님의 양치기, 아모스  
신약성경의 절반을 우리에게 전하고 사라진 사람, 실라

프랜신 리버스 지음 | 김선형·권진아 옮김 | 312-352면 | 각 권 11,000원

\*각 권 성경공부 수록